

## 그녀의 환상과 그의 환상 결혼에 대한 동상이몽

연애가 이상이라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오래된 속언이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온 두 사람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상의 거리만큼이나 많은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글 선안남 상담심리사



미현 씨는 분노 조절 문제로 상담을 신청했다. 그녀는 분노 폭발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남편과는 갈등하다가 별거를 했고 이혼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그녀와 남편은 서로 노력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보다 나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다음 세 가지에서 찾았다. 첫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둘째,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기려고 하기보다 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셋째, 자신의 여리고 약한 모습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 서로의 욕망과 환상이 불러온 갈등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내가 바라는 욕망과 환상의 렌즈에 비춰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세상의 갈등하는 부부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환상과 욕망으로 상대와 결혼생활을 보게 된다.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현 씨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문제에 귀 기울여주리라는 환상을 품었고 그 환상이 충족되지 않자 분노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을 때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했고 그럴수록 남편은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더 멀어져갔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녀와 결혼하면서 그녀가 독립적이고 자기 통제를 잘하리라는 환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를 피하고 무심하게 대했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자들은 다가가서 표현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도망치고 피하려 하는데 이 부부 역시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입혔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결국 남편도 자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약한 면이 있는 한 사람인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환상이 어린 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 역시 미현 씨의 여리고 약한 마음을 보면서 단순히 요구만 하고 징징댄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대로 귀 기울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갈등을 해결해나간 과정은 모든 부부가 겪는 통과의례다. 특히 신혼 3년 이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 끔찍한 악몽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라도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상대와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매우 친밀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누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환상이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결혼에 대한 환상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결혼을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보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환상이 채워지지 않았음에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과 환상의 괴리를 처리할 건강한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의 현실적인 계약이다. 보통 계약을 할 때 거래명세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잘 살펴야 하는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큼지막한 부분이나 곁으로 드러난 부분만 생각할 뿐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의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얘기하는 게 구차하게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에 세세히 따져보지 않았던 일은 모두 서로의 다른 환상으로 채워진다. 그렇게 세세히 따지지 않았던 부분은 나중에 큰 실망과 갈등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현실인지, 환상인지 잘 살펴자. 서로의 환상을 '함께' 현실에서 펼칠 수 있도록 말이다. ☺